인문연구 제92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2, No. 1, pp.1~32
http://dx.doi.org/10.21211/JHUM.92.1

유배압송일기 「북정일기(北征日記)」 연구

- 유배인과 압송관의 갈등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

조수미*

〈차 례〉

1. 서론
2. 만회 권득기와 「북정일기」
3. 유배 일정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 과정
4. 결론

【국문초록】

「북정일기」는 만회 권득기(1570~1622)가 압송관의 자격으로 전양부원군(全陽府院君) 류영경(柳永慶, 1550~1608)을 유배지 경흥(慶興)으로 압송할 때의 일을 기록한 유배압송일기(流配押送日記)로서, 유배압송관의 처지와 입장, 심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흥미로운 자료다.

본고는 「북정일기」가 가진 유배압송일기로서의 내용상 특징에 주목하였다. 특히 유배노정에서 발생하는 유배인과 압송관의 갈등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시간강사

전개 과정이 압송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압송관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정일기」에 나타난 압송관 만회와 유배인 류 승상 일행의 갈등의 전개 양상은 '갈등 발생-갈등 심화-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갈등 종결'로 요약할 수 있었다. 갈등의 중심은 유배 일정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정해진 유배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하자 갈등이 시작되었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배지에 무사히 도착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갈등 발생과 동시에 둘 사이에는 일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의지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배객 류 승상과 압송관 만회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나 주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배 노정 전반에 걸쳐 압송관은 정해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권득기, 「북정일기」, 유배압송일기, 『만회집(晩悔集)』, 류영경, 유배 일정 갈등

1. 서론

1) 연구의 현황

「북정일기」는 만회 권득기(1570~1622)가 압송관의 자격으로 전 양부원군(全陽府院君) 류영경(柳永慶, 1550~1608)을 유배지 경흥(慶興)으로 압송한 일을 기록한 유배압송일기(流配押送日

記)이다. 유배인 압송의 명을 받은 1608년 3월 18일에 대궐 앞에서 사배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압송을 마치고 돌아와 5월 26일 대궐 아래에서 복명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거의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일기를 기록하였고, 서술의 분량은 매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교적 길지 않다. 다만 간혹 경이로운 자연 풍경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매우 장황한 서술을 하였고, 유학자적 식견을 한껏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기는 『만회집(晩悔集)』에 실려 전한다.

지금까지 만회에 대한 연구는 그의 대표적 저술인 『논어참의(論語僭疑)』와 『맹자참의(孟子僭疑)』를 중심으로 한 유학사상사적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1] 「북정일기」에도 만회의 유학자적 면모가 드러나는 서술이 눈에 띈다. 만회는 유배 노정에서 만나는 낯선 자연 풍광을 보고 선비의 자세, 유학자적 성인의 자격 등에 대해 장황하게 논하곤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유학사상가로서의 만회가 아닌, 압송관으로서의 만회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정일기」는 드물게 전하는 유배압송일기이므로, 유배압송일기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상 특징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만회는 저명한 유학자라기보다는 유배인과 갈등을 겪는 유배 압송관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

1) 권득기의 유학사상사적 위상 등에 대한 논의는 류정동, 「만회 권득기의 생애와 철학사상」,『백제연구』10, 충남대 백제연구소, 1979, pp.237~247 ; 신동호, 「만회 권득기의 유학사상에 나타난 근대정신」, 『유학연구』1, 충남대 유학연구소, 1993, pp.19~39 ; 신상필, 「사실의 기록과 '傳' 양식의 새로운 가능성-「유연전」을 중심으로-」, 『동방학문학』39, 동방학문학회, 2009, pp.121~141 ;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 전병욱, 「만회 권득기의 격물설」, 『동양철학연구』77, 동양철학연구회, 2014, pp.345~373 ; 전재동, 「권득기의 『논어참의』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9 ; 함영대, 「만회 권득기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 『한국사상사학』55, 한국사상사학회, 2007, pp.49~77을 참조하였다.

한편 「북정일기」는 단독으로 연구된 적은 없고 만회의 사상과 생애를 고구하는 과정에서 간혹 언급되는데 그치곤 하였다.

조선시대 일기 자료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최근 종합적인 연구사 정리가 시도된 바 있다.[2]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 일기 자료는 1990년대 문학연구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개념 규정 및 자료 성격에 따른 분류가 시도되는 등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0년대 이후 대상 작품도 확대되고 주제도 다양해지는 등 일기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번역서 간행과 이에 뒤이은 공동 연구가 하나의 연구 유형을 형성함으로써 특정 작품에 대한 연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만다는 점, 연구가 확장된 것에 비해 연구 내용이 단순하여 연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배일기에 대한 연구도 여타의 조선시대 일기자료 연구와 그 흐름을 함께 한다. 연구의 기초가 되는 원본 확정과 번역 작업의 부족, 특정 작품에 집중된 번역 및 연구, 연구 주제의 다양화 필요성 등은 여타의 일기 연구의 문제점과 다르지 않다.[3]

다행히도 「북정일기」는 원본 확정과 번역 작업은 마무리 되었으나 기초적인 해제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북정일기」의 저자인 만회와 일기 기록의 배경, 일기의 내용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유배 노정에서 발생하는 유배객과 압송관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유배압송일기로서의 「북정일기」의 내용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김정운, 「조선시대 일기자료와 연구동향」, 『영남학』72, 영남학연구소, 2020, pp.9~17.

3)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pp.24~25.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한편 유배객이 쓴 유배일기는 일반적으로 '유배노정, 유배생활, 해배노정'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유배노정을 기록한 부분은 얼핏 보아서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배압송일기인「북정일기」와 유사하다. 유배의 길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유배인과 압송관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유배노정에 대한 기록이 유사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가령 지나는 고을이나 역의 이름, 지역 수령의 이름과 본인과의 관계, 지역에 대한 간략한 정보나 풍경 묘사, 출발 및 도착 시간 등에 대한 기록은 일반적인 유배일기와「북정일기」에 공통된 내용이다.

「북정일기」라는 제목도 유배일기의 그것과 유사하다. 약 40여 편[4]의 유배일기들의 제목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르명에 해당되는 표현으로는 日記, 日錄이 전체의 약 75%, 그 외에는 日史, 史, 記이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목의 나머지 부분, 즉 장르명에 해당되는 마지막 표현을 제외한 앞 부분의 표현은 '① 東,西,南,北 등의 방향을 나타내는 글자와 遷, 謫, 竄, 征 등 유배를 의미하는 단어의 조합 ② 저자의 이름이나 호 ③ 유배지명'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한 방식은 ①의 방식이다.「북정일기」는 '北+征+日記'로 구성되어 있어 제목만으로 본다면 유배일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마치 유배객이 자신의 유배 경험을 직접 기록한 유배일기의 제목처럼 보인다.

요컨대 유배압송일기인「북정일기」가 자칫 유배일기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간「북정일기」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드물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착시현상으로 인해 유배압송일기로서는 희

4) 위의 책, p.235에 소개된 유배일기 40여 편의 목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한 자료인 「북정일기」의 가치가 쉽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거듭 말하자면 유배압송일기인 「북정일기」에서 우선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내용상의 특징은 바로 여타의 일기에서는 볼 수 없는 유배 압송과 관련된 기록들, 특히 유배인과 압송관의 갈등, 압송관의 심적 정황과 압송관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압송관의 임무는 조선시대 법률과 제도 등에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도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압송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 즉 태도와 심리 상태 등은 법률조항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법으로 명시된 조항으로서의 압송관의 임무가 아닌, 구체적 실체로서의 압송관의 임무 수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유배일기를 통해서 가능했다. 그러나 유배일기는 엄연히 유배객의 입장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압송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유배일기 속에서 압송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우선 쉽지가 않다. 게다가 압송관이 등장하더라도 대부분은 유배인에게 몰인정하게 굴거나 사정없이 일정을 재촉해 유배인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가령 "저녁에 금부나졸 석응련이 옥천의 율현으로 달려 와서 지난 3일 길주 영동역으로 유배의 명이 내렸음을 전해 주다."[5], "오후 늦게 유배지를 통보하는 단자가 비로소 내려오고 압송을 담당한 도사 이민호가 곧바로 대궐로 나가 대기하였다."[6], "도사 이민

---

5) 〈북적일기(北謫日記)〉(조헌(趙憲)) 1589.5.8.(『불멸의 중봉 조헌』, 김포문화원 편역, 2004, p.533.)

6) 〈남천록(南遷錄)〉(송상기(宋上琦)) 1722.1.1.(『옥오재집(玉吾齋集)』4, 박종훈 외 역,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문진, 2013, p.234.)

호가 인사하고 떠났다."[7]처럼 압송관이 유배 일행을 압송하기 위해 왔을 때와 유배지 도착 후 떠날 때만 간략히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저도 기록하지 않은 유배일기도 많다.

혹은 "어느덧 금부도사 홍익열이 문에 이르러 재촉이 불같으니 어이 잠신들 지체하리오. 모든 일가와 더불어 이별하니 나는 마음이 당황한지라 추운 줄 깨닫지 못하였도다."[8], "사십 리 길을 가서 화성에 이르니 시각이 이미 초경이어서 유숙하는가 싶었는데 부랑(府郞)이 또 거듭 길을 재촉하면서 말하기를 …"[9]처럼 압송관이 유배인을 재촉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서술하거나, "대체로 다른 관가 사람들(압송관리)은 귀양 가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입고 먹으면서 가는 데마다 빼앗아 내는 통에 길가 여염집들이 소란스러웠다."[10]며 압송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한다.

"또 (후명)도사 재촉함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제 조정암의 자손이면 어이 저희 할아버님 일을 돌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토록 핍박하느냐 … 상후의 안부를 물으시니 도사 쭈뼛쭈뼛하고 대답 못하더니 민창수가 섬돌아래 서서 '천세천세'하니 도사 (그제서야) 그대로 대답하더라."[11]라는 장면에는 후명(後命)[12]을 가지고 내려온 도사가 융통성 없고 똑똑치 못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후명 도사에 대한 조롱의 태도마저 엿보인다. 후명 도사가 압송관은

---

7) 위의 글, p.239.

8) 〈남뎡일긔〉(박조수(朴祖壽)) 1744.9.17.(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한글필사본. 인용문은 필자 현대어역)

9) 〈자산록(玆山錄)〉(박우현(朴遇賢)) 1873.12.21.(『금파유집(錦坡遺集) 자산록(玆山錄)』, 김형만 역주, 신안문화원 신안향토사료집, 2016, p.66.)

10) 〈감담일기(坎窞日記)〉(김려(金鑢)) 1797.11.22.(『글짓기 조심하소』, 오희복 역, 보리, 2006, p.647.)

11) 〈壬寅遺事 夢窩星州遺敎 附竹醉富寧遺敎〉(김신겸(金信謙), 김원행(金元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한글필사본. 인용문은 필자 현대어역)

12) 뒤따른 명이라는 의미인데, 賜死를 말한다.

아니지만 유배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배인에게 내려진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유배인의 입장에서 기록된 유배일기에는 마찬가지로 압송관도 곱게 묘사될 리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하겠다.

「북정일기」는 흔치 않은 유배압송일기이다. 따라서 이처럼 유배일기에서는 주로 악역으로 등장하거나 미미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유배압송관의 처지와 입장, 심리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매우 반가운 자료라고 하겠다. 본고는 「북정일기」를 통해 유배인과 압송관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압송관의 역할 수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유배인의 입장에서 주로 파악되었던 압송관에 대한 이미지, 유배노정에서의 갈등 양상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돕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만회 권득기와 「북정일기」

1) 만회 권득기의 생애[13]

만회는 명문가 안동 권씨 가문의 후손으로서 1570년 아버지 권극관(權克寬)과 어머니 함안(咸安) 윤씨(尹氏) 사이에서 태어나 이른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의 평생 벼슬살이는 부침이 심했다. 그가 벼슬길에 막 들어섰을 즈음에는 기축옥사로 남인과 북인의 대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41세 되던 해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나 거듭된 집안의 상사[14]로 출사의 기회와 의지가 크게 꺾였

13) 『만회집』 부록의 〈가장(家狀)〉, 〈묘갈명(墓碣銘)〉, 〈묘지명(墓誌銘)〉, 〈제문(祭文)〉 등을 참조하였다.

14) 1600년(31세)에는 입후(立後)된 숙부의 집안에 상사가 났고, 장원급제 후

다. 만회가 류영경을 압송한 시기는 그가 문과에 장원급제하기 두 해 전인이 1608년 광해군 즉위년이었다. 비록 여러 가지 일들로 그의 환로에 부침이 있긴 하였지만 이 시기는 그가 한창 의욕적으로 관직을 수행하던 시기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대과에 장원급제한 지 서너 해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계축옥사가 일어났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대비에서 폐하고 서궁에 유폐하자 만회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저술과 후학 양성에 몰두하게 된다. 그가 벼슬을 그만 둔 표면적 명분은 거듭된 집안의 喪事라고 하겠지만 계축옥사로 인해 느끼게 된 광해에 대한 실망감이야말로 귀향의 실질적 이유였다.

그는 폐비의 부당함을 밝히는 수 천자의 상소문을 썼지만 결 국왕에게 올리지 못하였는데 이 일은 두고두고 그의 마음에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회집』권1에는 '스스로 지은 만사(挽詞)'라는 의미의 〈자만(自挽)〉이라는 시가 실려 있다. 시에서 만회는 자신이 '변화(卞化)'같이 하지 못한 것이 죽어서까지 가져갈 한이라고 하였다.[15] 변화는'진실을 말했다가 화를 당한 인물'의 역사적 전형이다.[16] 변화가 고초를 겪으면서도 거듭 진실을 말한 것처럼 만회 자신도 상소문을 올려 광해의 실정을 말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생이 기울어가는 즈음까지도 그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상을, 모친의 삼년상을 마친 뒤 곧 부친상을 겪었다.(전재동, 「권득기의 『논어참의』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9, pp.1~11)

15) 시에 대한 해석은 임준철, 『내 무덤으로 가는 길』, 문학동네, 2014, p.46. 참조.

16) 변화는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이다. 박옥(璞玉)을 캐서 려왕(厲王)에게 바쳤는데 여왕이 돌을 옥이라고 거짓말한다고 하며 변화의 왼쪽 발꿈치를 베었다. 무왕이 즉위하자 또 바쳤더니, 이번에는 같은 이유로 오른쪽 발꿈치를 베었다. 그 뒤 문왕이 사람을 시켜서 박옥을 다듬었더니 과연 좋은 옥이 나왔다고 한다. 변화의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 이진이 외조부 우재선생을 섬겼더니 선생께서 이진에게 이르기를 연평이공이 일찍이 말하되 '(인조)반정의 계책이 무오년에 시작되었는데 이에 앞서 만회 권좌랑이 도보로 서울 성 밖으로 떠나감을 보았으니 더욱 우리 일이 그르지 않음을 알겠도다.' 하였으니 만회가 그때 사람들에게 존중됨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도다.' 하였다. … 지천 최상공이 선조부 탄옹 선생을 천거하면서 말하기를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후일에 뛰어나 저명한 선비라'고 하였은즉 …[17]

광해군 즉위 이후 세상에 도가 바로 서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긴 만회가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간 일은 많은 선비들의 존경과 기림을 받았다. 그가 광해를 버린 것을 보고 반정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일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만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조선 조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상공(최명길)이 조정에 권시(權諰)를 추천하면서 그 이유로 '만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점도 만회가 당대 유학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지를 말해준다.

그의 절개 못지않게 후대 유학자들로부터 존경받은 것은 그의 학문이었다. 그의 유학자적 면모와 저술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8]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논어참의』와 『맹자참의』는 주자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독자적으로 찾아 나간 과정과 성과를 보여줌

---

17) 以鎭逮事外祖尤齋先生 先生謂以鎭曰 延平李公嘗言 反正之策始於戊午 前此時也 出見晩悔權佐郎徒步出城 益信吾事之不非云 晩悔之見重於時人於此可見矣 … 遲川崔相公之薦先祖考炭翁先生 而亦曰 名父之子 他日命世之儒則 …(『만회집』 부록 〈발문〉) * 본고의 인용자료(「북정일기」 포함 『만회집』 소재의 모든 글)는 모두 윤충호(尹忠鎬), 이종락(李鍾洛), 이성우(李性雨) 번역의 『만회집』上下(도산학술연구원, 1997.)을 참조하였다. 이후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북정일기」의 인용문은 날짜만 기록하기로 한다.

18) 각주 1)을 참조

으로써 주자학이 교조화 되기 이전 조선의 지성인들이 경전을 음미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로움과 성숙에 대해 증언해주는 것[19]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요컨대 만회는 절개 높은 선비이자 학문이 깊은 학자였다. 「북정일기」는 흔치 않은 유배압송일기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저자가 바로 조선 전기의 저명한 학자이자 선비인 만회 권득기라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자료라고 하겠다.

2) 「북정일기」 서술 배경

> 태세가 신에 있었던 해 봄이 저물 적에 굵은 베옷을 입은 거원자가 시험을 관장하는 관원으로서 의금부의 수령이었는데, 이 때에 하동 승상에게 여결지명이 있어서 거원자가 죄인을 호송하여 가게 되었다.[20]
> (3월 18일)

---

19) 함영대, 앞의 논문, p.50.

20) 太歲在申春之暮 褐衣居元子試吏錦衣首領 于時河東丞相 有予玦之命 而居元子承命狎行.
「북정일기」는 『만회집』(도산학술원, 1997)과 『전양부원군유적(全陽府院君遺蹟)』(전주류씨 전능부원군종중, 2008)에 번역본이 있다. 『전양부원군유적』의 역자는 『만회집』의 「북정일기」를 요약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두 번역본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전양부원군유적』의 편자는 만회가 주변 풍경을 장황하게 묘사한 장면이나 개인적 사무를 본 일, 감회 등을 기록한 것은 간략히 서술하거나 생략하였다. 생략이나 축약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유배길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1608년 3월 27일에 류 승상이 약물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 더 머물기를 청하는 장면이 있다. 이때 『만회집』의 「북정일기」에는 '내(만회)가 마지못해 응해 주었다.'고 번역되어 있으나 『전양부원군유적』에는 '내(만회)가 힘써 받들어 응해 줄 것이니'라고 번역되어 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힘써 응해 주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정황상으로 보자면 만회가 '마지못해' 응해 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문리에 맞다. 『만회집』(도산학술원, 1997)은 당연히 『만회집』의 주인이자 당시 압송관이었던 권득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해석을 하였고, 『전양부원군유적』(전주류씨 전능부원군종중, 2008)은 당시 유배당사자였던 류영경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료를 해석하였다.

『만회집』권4의 두 번째 글인 「북정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태세가 신에 있었던 해'는 '戊申'년으로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을, '하동 승상'은 전양부원군 류영경을, 거원자는 만회 자신을 가리킨다. 류영경은 광해군 즉위를 기점으로 증폭된 소북파와 대북파의 갈등(정확히는 대북파의 소북파 숙청) 속에서 결국 그 해 3월에 '여결지명(予玦之命)', 즉 유배형에 처해졌다. 품계 높은 관리를 압송하는 것은 의금부도사가 맡게 되어 있었으므로[21] 당시 의금부도사로 있었던 만회가 류영경을 유배지 경흥까지 압송하고 위리안치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일기의 서두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양부원군 류영경[22]은 23세 되던 해 춘당대 별시 병과(春塘臺別試 兵科)로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43세 되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조정랑으로 선조를 호종하였고, 초유어사(招諭御使)가 되어 의병 800여 명을 모으는 공을 세우는 등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는 동안 많은 공을 세워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해지고 부원군이 되었다. 또한 손자는 부마가 되고 아들, 사위 등도 함께 관작과 품계가 오르는 등 가문이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던 중 선조 39년(1606년) 3월 영창대군이 탄생하였을 때 마침 영의정에 재임하고 있었던 류영경은 영창대군을 보호해 달라는 선조의 고명을 받는다.

> 내전이 유교 1봉을 내렸는데 외면에 쓰기를 '류영경·한응인·박동량·서성·신흠·허성·한준겸 등에게 유교한다.'고 하였다. 유교의 내

21) 정2품 이상의 대신은 의금부도사, 종2품 참판 이하 정3품 당상관까지는 의금부 서리, 정3품 당하관 이하는 의금부 나장이 압송했다. 관리의 압송은 의금부에서, 일반 사족의 압송은 형조에서 맡았다.(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67, 역사비평사, 2004, p.266.)

22) 류영경에 대한 정보는 『전양부원군유적』(전주류씨 전능부원군종중, 2008)의 연보와 행장을 참조하였다.

용은, "…단지 대군이 어린데 미처 장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다. 내가 불행하게 된 뒤에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만일 사설이 있게 되면, 원컨대 제공들이 애호하고 부지하기 바란다. 감히 이를 부탁한다."하였다.

(광해군 즉위년(1608) 2월 2일)[23]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광해군 즉위 후 가문이 풍비박산 난 것이다. 1608년 2월 1일에 선조가 승하하고 다음 날 광해군이 즉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류영경 등을 벌 주라는 상소가 빗발쳤다. 2월 12일에 정언 이사경이 류영경을 파직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이후 완산군 이축이 류영경의 죄 아홉 가지를 들며 벨 것을 청하는 등 류영경의 삭탈, 유배, 사사 등을 청하는 상소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끊임없이 올라왔다.

결국 3월 18일에 류영경을 경흥으로 정배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나, 대북파들은 이에서 멈추지 않고 사사를 명할 것을 거듭 청하였다. 광해군은 선왕의 중신에게 사약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하여 결국 자진토록 명하였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나기 전까지 류영경의 아들, 조카, 손자들은 국문을 당하고 유배되거나 사사되었다. 류영경에 대한 대북파의 공격은 그의 사후에도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영천 사람 이평이 상소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잘못을 극론하면서 크게 아첨하는 말을 하여 상의 비위를 맞추었다. 상소의 대략은 류영경 등을 추형하고, 존호를 올리고, 공신을 녹훈하고, 역당의 흉서를 중외에 반포하는 등의 일을 청한 것이다.

(광해군 4년(1612) 5월 2일)[24]

---

23) 內殿降遺敎一封 外面書曰 遺敎于柳永慶 韓應寅 朴東亮 徐渻 申欽 許筬 韓浚謙 諸公 其敎曰 … 但大君幼稚 未及見其成長 以此耿耿耳 我不幸後人心難測 萬有邪說 願諸公愛護扶持 敢以此托之

24) 榮川人李坪上疏 極論討逆稽緩之失 大爲媚詞 以中上意 大槪請追刑柳永慶

> 의금부가 아뢰기를, "류영경의 집을 헐어버리고 못을 파는 일을 전례에 의해 한성부에 이문하고, … 옹주의 집은 헐지 말고[25] 영경의 본가만 못을 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
> (광해군 4년(1612년) 7월 1일)[26]

정적들은 이미 죽은 류영경의 신체를 다시 훼손(추형)하고 집은 헐어서 못을 파야 한다는 등 집요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류영경의 집안은 그야말로 절문되다시피 하였다.

「북정일기」에는 이처럼 대북파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었던 류영경을 유배지로 압송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기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면 관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기록한 것이므로, 비록 사적인 글이긴 하지만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관련된 정치적 정황의 복잡성, 일기가 문집에 실려 전한다는 사실은 「북정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의미망을 헤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된 정치적 상황이 위급할수록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고, 문집에 실리기 전 후손들에 의해 많은 것들이 가감되거나 다듬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북정일기」는 광해군 즉위 직후의 소용돌이치던 정치적 환란을 매우 가까이서 목격한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후일에 두루 볼 수 있게 준비한다(以備後日之覽云)"는 일기의 마지막 말(5월 26일)이 조선시대 일기의 관례적인 표현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다.

等 請上尊號 請錄勳臣 請以逆賊 黨兇書頒示中外等事也.

25) 류영경의 손자 류정량(柳廷亮)이 옹주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옹주도 류영경의 집안사람이지만, 옹주의 집은 차마 헐 수 없으니 그대로 둔다는 말이다.

26) 義禁府啓曰 以柳永慶破家潴澤事 啓下後依例移文于漢城府 … 翁主家勿爲撤毁 只就 柳永慶本家使之潴澤何如 答曰 允.

결과적으로「북정일기」에는 다만 유배인을 일정에 맞게 압송해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한 유배압송관으로서의 만회의 처지가 두드러질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유배인과 압송관이 유배 일정을 둘러싸고 일으키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특히「북정일기」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유배압송일기이므로, 압송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배노정의 갈등 전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유배 일정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 과정

일기는 1608년 3월 18일 만회가 압송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같은 해 5월 26일 압송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난다. 약 2달간 4천 여 리를 왕복한 것인데 거의 매일 이동 경로와 이동 거리 등을 꼼꼼히 기록하였다. 지나는 곳의 풍광을 감탄하면서 장황하게 묘사하거나,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등의 개인적 일을 보는 경우 등도 있지만 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서술초점은 류 승상(류영경)[27] 일행을 어떻게 압송해 나갔는가 하는 점이고, 압송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유배 일정을 둘러싼 두 사람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유배 노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만회가 류 승상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었는지, 더 정확히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는지를

27) 의금부도사가 전 부원군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일이므로「북정일기」에는 류영경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 '하동 승상', '류 승상', '승상'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류영경을 일기의 표현 그대로 '류 승상'으로 표기한다.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압송관이기 때문에 유배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유배 노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관련된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고 일기는 후손들에 의해 가감이 되어서 문집에 실려 전하기 때문에 류 승상에 대한 만회의 감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참고가 될 만한 장면이 일기에 나온다.

> 재군은 조정에서 명성이 있었는데 승상이 물리쳐서 작은 고을에 와 있었고, 함흥판관도 승상에 거슬려 좌천되어 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승상을 대접하고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우를 다하고 후하게 대접하니 승상의 자제들이 덕으로 여기었다. 재군이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 사헌부와 사간원의 벼슬아치 가운데 승상을 공격하는 자가 대개는 다 승상의 도리이니 이것은 가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대개 돌려서 남의 결점을 말하는 말이다.
>
> (4월 18일)[28]

유배길을 가다보면 사람들의 인심이나 인정이 예상과 다른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승상은 앞서 평소 인연이 있었던 회양 수령에게서 호의적인 대접을 받을 것이라 기대 했다가 홀대를 받고 분개했었는데, 오히려 승상 때문에 좌천되거나 작은 마을 수령으로 쫓겨난 이력이 있는 재군과 함흥판관이 예를 다해 대접하자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재군이 '지금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승상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두 승상의 덕을 입었거나 승상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굳이 지적하여 만회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만회는 재군의 이런 언급이 '돌려서 남의 결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탐탁지

---

28) 宰君名士也 舊有聲於朝著 爲丞相擯棄 作此遠小縣到今頗禮遇之並 咸興判君亦 曾以言忤丞相左遷而來人 咸疑其不肯 接遇判君自附於蒸羊之義禮遇且厚餽之丞相家子弟深德兩人過於所望 宰君謂余曰 卽見邸報 今之臺諫攻丞相者 大抵 皆丞相之桃李 是不可曉也 其意盖有所諷也.

않아 한다. 만회는 재군의 말에 동조하기보다는 선비답지 못한 재군의 행동을 속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만회가 유배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류 승상과 갈등을 빚게 되지만, 그것이 유배와 상관없는 어떤 사적 감정이나 적의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장면만으로 만회가 류 승상에 대해 호의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제「북정일기」에서 압송관 만회와 유배인 류영경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갈등의 발단 - 유배 일정의 지연

일기는 만회가 류영경을 유배지로 압송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 뒤 곧바로 날짜별 진행 상황을 써 내려가는 일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인다.

광해군 즉위년(1608) 3월 18일에 류영경에게 유배형이 내려지고 만회가 압송관으로 정해졌다. 만회는 이날 바로 대궐 아래에서 사배하고 가족들과 작별한 뒤 출발하였다.

그런데 마침 유배형이 내려진 다음 날 비가 많이 왔다. 그런데도 류 승상 일행이 출발하려 하자 오히려 만회가 만류하고는 비가 그치면 가자고 하였다.(3월 19일) 만회는 이 날 일기에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되 승상이 만약 이 마음을 존속한다면 이미 떠난 뒤에라도 마땅히 수정을 겸하여 행하리니 며칠 아니 되어 장차 배소에 도달할 것이다.
>
> (3월 19일)[29]

29) 余心以爲 丞相若存得此心 旣發之後 當兼行數程 不日將到配所矣.

만회는 비가 오는데도 승상 일행이 출발하려고 하자 승상이 이런 마음을 유배 일정 내내 유지한다면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곧 정해진 일정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승상이 유배길 도중에 성묘하려고 하자 흔쾌히 허락(3월 20일, 22일)했던 것도 처음의 그 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일정이 늦춰지자 만회도 재촉을 하기 시작했고(3월 24일, 26일) 승상 일행도 만회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여러 이유를 들면서 일정을 늦추어달라는 요구(3월 27일)를 해오기 시작한다. 그러다 유배길에 나선 지 열흘밖에 안 되는 3월 29일에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원래 유배행렬은 하루 80~90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균 30~40리는 이동했다.[30] 그렇다면 류 승상은 이날 원칙적으로는 약 800리, 관례상으로 보아도 300리는 이동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길 저 길로 우회하고 자꾸 머무는 바람에 서울에서 80~90리 정도밖에 벗어나지 못했다. 만회는 어쩔 수 없어서 승상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내용으로 장계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승상이 곧 속도를 낼 것이니 굳이 장계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런데 또 승상의 아들이 찾아와 전창위(全昌尉, 옹주와 결혼한 승상의 손자)가 승상의 약물을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철령을 넘어 버리면 받기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더하고 갔다. 류 승상을 일정에 맞추어 압송해 가야만 하는 만회는 이미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장계를 올려서 사정을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만큼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승상의 아들은 눈치 없이 더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보탠 것이다.

이즈음 조정에서는 류 승상에게 사형을 내리기를 청하는 상소가

30) 김경숙, 앞의 논문, pp.267~268.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만회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이 명국이라 하는 자가 상소하여 승상에게 사형을 내리기를 청하였다. … 그러나 대평은 비록 나왔으나 임금께서 들으심이 반드시 급하게 좇으시지 아니할 것이며 … 다만 미워하는 자들의 노여움만 심하게 만들 것이고 천총의 의심만 더하여 질 것이니 … 이것은 나의 어리석고 나약한 죄 때문이다."[31](4월 1일)라고 하였다.[32] 만회는 비록 류 승상에 대한 논의가 극악해 지고 있지만 설마 사사의 명이 내려올 리는 없다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유배인이 법에서 정한 대로 일정을 따르지 않으면 공격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였다. 그리고 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어찌 되었든 자신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라는 자책을 하고 있다. 만회가 이렇게 초조해하고 있는 동안 류 승상도 조정의 여론을 살피느라 그런 것인지 나흘(4월 3일~6일)이나 더 머물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유배인과 압송관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배 일정과 관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압송관은 나라에서 정한 일정을 따라야만 하는데 유배인은 유배인대로 일정을 늦추어야 할 이유가 자꾸 생긴다. 만회가 처음부터 류 승상 일행과 갈등을 빚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정이 하루하루 늦추어지자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겨났다.

---

31) 鳴國其名者 上疏請誅丞相 … 然臺評雖發 天聽未必遽從 … 祗足以激疾者之怒 而益天聽之疑 … 此由余癡懦之罪也.

32) 실록에도 이러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유학 소명국이 상소하여 유영경을 베고 이홍로의 죄를 국문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모두 알았다. 유영경·이홍로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이미 의논하여 조처하였다.'하였다."(幼學蘇鳴國上疏 請誅柳永慶 鞫李弘老之罪 答曰 具悉疏辭 柳永慶 李弘老 朝廷已爲議處矣)(광해군 즉위년(1608) 3월 22일)

2) 갈등의 심화 - 감정적 대립

유배 일정 때문에 결국은 만회와 류 승상 일행 사이에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 내가 통진에게 고하기를 해가 아직 이르고 문천이 썩 가까우니 이곳을 지나가겠습니까 하니 어른의 기운이 편치 못하시니 이곳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대답하기에 내가 내일 문천을 지나 고원까지 도달할 것을 요구하니 통진은 데면데면한 모양으로 응하더라 … 이날 저녁에 내가 생각하니 승상이 강원도에 있을 때 철령을 지난 뒤에는 두 역을 겸하여 가겠다고 허락하였는데 지금 또 마음대로 하는지라 노정을 계산해보니 겨우 4분의 1을 왔는데 날자는 이미 20일이 지나 앞길이 아득하여 가히 기약할 수 없으니 속이 답답하고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혼자 심한 욕을 마구 하여 답답함을 풀었다."
>
> (4월 10일)[33]

통진은 류 승상의 아들인 통진부사 열(悅)을 가리킨다. 이 날에는 유배 일정과 관련한 갈등이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었다. 만회는 더 나아갈 것을, 승상 일행은 더 머물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이 대립하는 와중에 만회가 압송관의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일정을 강요하였으나 통진은 귀담아 듣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압송관 만회의 요구를 불편하게 여긴 것이다. 만회는 만회대로 분을 삭이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와 혼자 심한 욕을 해대며 답답한 마음을 풀었다. 만회의 말대로 20일이나 지난 시점에 노정의 1/4밖에 나아가지 못했으니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60여 일은 더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길이 아득하고 속

33) 余告通津 以日尙早 文川甚邇 能過此否 答以大人氣不平 當留 余仍要以明過文川 抵高原 通津泛然應之 … 是夕 余思丞相在江原道時 許以過嶺後兼行兩驛 今又相謾 計程纔四分之一 而日子已過二十 前道杳茫 不可期悶悶無聊 時肆罵詈以舒憤懣.

이 답답하고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었다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는 듯도 하다.

이 날의 불편한 대화 때문인지 이후 오랫동안 만회가 일정 논의를 위해 승상을 찾을 때 통진의 모습은 볼 수 없다.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거나(4월 15일), 만회가 굳이 통진을 찾는데도 승상이 종을 통해 연락하거나(4월 17일) 하였다.

통진과 처음 얼굴을 붉힌 다음 날(4월 11일), 고원에 도착해야 된다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상 일행은 또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고, 만회는 또다시 다음날에는 영흥에 도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진의 아우 송화현감 제(悌)가 겉으로는 어쨌든 공손히 대답하면서 그 당부를 듣고 돌아갔지만[34], 만회의 화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날의 일기에는 "밤에 나의 몹시 욕함이 어제와 같았다(夜來之罵詈如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 4월 28일에 다시 유배 일정 때문에 갈등이 폭발했다. 이 날 승상은 서울 소식을 듣고자 서찰을 보냈으니 머물고자 한다는 연락을 전해 왔다. 만회는 통진에게 좋은 말로 사정을 말하였고 늦어도 모레는 명천에 꼭 도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승상 일행이 이미 도착했어야 하는 5월 1일, 그것도 이미 출발하고도 남았어야 하는 고참역에서 자겠다는 기별을 해 왔다. 만회는 이 날의 일기에 "기별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밤에는 원통하고 분하여 잠을 못 이루었다(聞之 不分殆欲作造 次夜 來憤氣勃勃 寢不能)"고 기록하였다.

결국 유배 일정 때문에 압송관과 유배 일행이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류 승상의 아들은 화를 내고, 만

34) 저녁 전에 송화가 찾아와 또 가지 못한다는 뜻을 고하거늘 내가 인해 명일 고원을 지나 영흥에서 잘 뜻으로 굳이 요구하니 송화가 공손한 태도로 순종하고 갔다(夕前松禾來訪 且告不行之意 余因苦要 明日過高原 宿永興之意 松禾唯唯)(4월 11일)

회는 분노와 자책을 거듭한다. '심한 욕을 했다, 분해서 잠을 못 잤다, 답답하고 부끄럽다'와 같은 솔직한 표현들이 눈에 띄는데 유배일기로는 알 수 없는 압송관의 심적 상태를 잘 보여준다. 유배일정이 어긋날 때 유배압송관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한 솔직한 기술은 유배압송일기가 아니라면 어디서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3)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 -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그러나 만회도 류 승상 일행도 유배 일정 때문에 갈등이 쌓이기만 하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유배 행렬이 무사히 유배지에 도착할 때까지 압송관과 유배인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유배일정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어가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만회와 류 승상 일행 모두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회와 통진의 관계를 보아도 그렇다. 두 사람은 처음 서로 얼굴을 붉힌 뒤 한동안 상대를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서로 계속 척을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단천 군수를 합석시키고 밤 늦도록 이야기하고 술을 마신(4월 25일) 뒤 다소나마 껄끄러움이 해소되었는지 이후로는 다시 만회와 통진이 일정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만회는 만회대로 최대한 류 승상 일행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장계의 글자 하나를 두고 만회가 했던 고민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유배 일정이 너무 늦어지자 류 승상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만회에게 병이 중하여 천천히 행한다는 뜻으로 장계를 올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더 머물겠다고 하였다. 만회는 승상의 앞에서

는 공손하게 대답하고 나와서는 송화에게 자신은 먼저 출발할테니 다음날까지는 함흥에 도착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였고 통진에게도 편지로 당부했다.(4월 13일) 다음 날인 4월 14일에 만회의 당부대로 승상 일행이 함흥에 도착했다.

> 느지막에 승상이 비로소 도착하니 대개 어제 초원에서 자고 오늘 정평에서 자려고 하였는데 내가 아침에 장계를 보낼 때 바야흐로 함흥에 도착하도록 말씀드렸고 서찰을 만들어 통진에게 고하기를 속히 와서 그 말을 실증하라고 했던 까닭에 85리를 걸어서 이곳에 도착한 것이다.
>
> (4월 14일)[35]

승상 일행이 무리해서 85리나 달려왔던 이유는 만회가 장계에 이미 써서 올린 내용을 실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날의 일기에는 압송관으로서 장계의 내용을 두고 만회가 했던 복잡한 계산과 고민이 덧붙여 기록되어 있어 꽤 흥미롭다.

> 方이라는 글자는 방금의 뜻인데 세속적으로 방자를 해석하기를 方將의 뜻으로 쓰므로 내가 이것을 차용하여 바야흐로 장차 함흥에 이른다고 한 것이니 원래 사용되는 뜻을 좇은즉 欺罔之誅를 스스로 청한 것이고 諺俗을 좇은즉 승상이 마침내 혹 죄를 피하는데 이르지 않을까 바란 것이다.
>
> (4월 14일)[36]

만회는 전날 쓴 장계에 '方到咸興'이라는 표현을 썼다. 方을 가까운 과거를 가리키는 '방금'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方到咸興'은

---

35) 晩丞相始到 盖昨宿楚原 擬以今宿定平 余朝送狀啓 以方到咸興 爲辭作書告通津 俾速其來 以實其言 故兼行八十五里到此也.

36) 方之爲字 方今之義也 而諺俗解方字以方將爲義 故余借用之以 今日方將到咸興也 循古義則 爲自干欺罔之誅 循諺俗則 丞相果至或可逭.

'방금 (승상 일행이) 함흥에 도착했다.'고 해석된다. 만회는 승상 일행이 장계에 올린 날짜에 맞춰 함흥에 도착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흔히 쓰이는 바에 따른다면 方은 '方將', 즉 '이제 곧'이라는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方到咸興'은 '이제 곧 (승상 일행이) 함흥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혹 승상 일행이 일정에 맞춰 이미 도착해 있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승상 일행이 일정에 맞춰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표현을 찾기 위해 만회는 나름 고민했다. 만회는 승상 일행이 장계에 올린 일정을 지키기를 기대했지만 혹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을 찾느라 고심하고 그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압송관의 이러한 복잡한 고민과 걱정은 여타의 유배일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장계의 글자 하나를 두고 고심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하며 류 승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 오시에 승상의 행차가 도착하였는데 내가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더니 통진이 찾아와서 몹시 분한 원망이 사라졌다. 저들이 비록 나를 속이었으나 스스로 이것은 저들의 과실이지 나에게 무엇이 관계되겠는가. … 이미 능히 바른 길로 나가게 하지 못하면 그 쇠약하여 생긴 병을 불쌍히 여기어 그가 쉬면서 편안히 가는 것을 들어주면 또한 그만이다. 저들의 속임은 저들의 예삿일인데 어찌 족히 분하게 여길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생각과 학문이 얕은 장부가 됨을 알았다.
>
> (5월 2일)[37]

---

37) 午時丞相行到 余不訪下處 伻人問候 通津相訪 忿怨容易消 彼雖見謾 自是彼過何預於我 … 旣不能制矜 其衰病聽其歇息安行 則亦可以已矣 彼之相謾 常事也 何足忿哉 於是乎知 余淺之爲丈夫也.

류 승상 일행이 또다시 늦어진다는 일방적인 연락을 해 와서 분하고 원통해 악몽을 꾸었다고 한 다음 날(5월 2일)이다. 승상의 일행이 드디어 명천에 도착했다. 만회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통진이 눈치가 있었는지 직접 찾아오니 만회의 화가 많이 풀렸다. 만회는 승상 일행이 자꾸 일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지난밤만 해도 매우 분개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들이 자꾸 일정을 늦추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체념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만회는 이미 정해진 일정을 지키기에는 늦었으니 차라리 쇠약해진 류 승상을 편안히 나아가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로 한다. 그리고는 지난 밤 지나치게 흥분하고 분개했던 자신을 생각과 학문이 얕은 장부라고 자책하였다.

압송관이 장계의 글자 하나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것, 유배 일행과의 갈등 때문에 분노와 자책, 체념 등의 여러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는 것을「북정일기」는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4) 갈등의 종결 - 유배 노정의 종결

유배 일정을 둘러싸고 압송인과 유배인 사이에 발생했던 갈등의 상황은 일행이 유배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종결될 수밖에 없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유배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기 시작할 즈음에는 만회와 승상 일행 사이에도 일종의 동료 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승상 일행은 이제 더 이상 억지를 쓰지 않았다. 속도를 늦추고자 요구할 때도 "자네(만회)가 머무르면 머물고자 한다."고 에둘러 말하였다. 만회도 그 전처럼 무조건 재촉하지는 않고 통진을 찾아가서 "(저는 머물 이유가 없지만) 승상이 머무르고자 하시면 마땅히 머무르시는 것이

지요."라고 공손히 답해 주었다. 이처럼 승상 일행도 억지스럽게 일정을 늦추고자 하지 않고 만회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하고, 만회도 승상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유배 초반에 서로 마음이 상한 듯했던 만회와 통진이 종종 술자리를 함께 하는 모습은 압송관과 유배인이 흡사 운명공동체 같아 보이게 한다.

이후로 계속 만회가 앞서고 승상 일행이 뒤따르며 나아가다가 마침내 만회가 5월 11일에 먼저 유배지 경흥에 도착하고 승상도 다음날인 5월 12일에 도착하였다. 만회는 류 승상을 배소에 위리안치한 뒤 그 날(5월 13일) 저녁 출발하여 25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매우 빨랐다.

이상 「북정일기」에 나타난 압송관 만회와 유배인 류 승상 일행의 갈등 전개 과정은 '갈등 발생-갈등 심화-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갈등 종결'로 요약할 수 있었다. 정해진 유배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하자 갈등이 시작되었고, 류 승상 일행과 만회가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배지에 무사히 도착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갈등 발생과 동시에 둘 사이에는 일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의지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배객 류 승상과 압송관 만회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나 주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유배지에 도착하면서 압송관과 유배객 사이의 갈등은 종결되었다.

한편 갈등 전개 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압송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구체적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압송관은 일정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유배 행렬이 가고 서는 것을 조정하거나 정해진 유배노정을 다소 벗어나는 것도 재량껏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류 승상 일

행의 출발을 늦춰준 것, 성묘를 허락한 것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압송관이 유배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배객 일행과 서면이나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만회도 한때 류 승상의 큰 아들 통진과 감정이 상하기도 하였지만 일정 조정을 위한 소통을 멈추지는 않았다. 유배객이 류 승상처럼 전직 고위 관리인 경우 압송관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압송관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정에 장계를 올리는 것이었다. 특히 만회의 고심처럼 장계의 글자 하나라도 유배객이나 압송관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류 승상의 병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을 때 장계를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만회와 류승상은 자주 의견이 나누어지곤 하였는데, 장계라는 공적 문서 작성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넷째, 압송관은 유배객을 직접 이끌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정을 논의한 뒤 압송관이 앞서서 정해진 역에 도착하면 뒤를 이어 유배객이 도착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만회도 류 승상과 계속 동행하면서 직접 압송해 간 것이 아니라 별도로 길을 가면서 숙박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압송했다. 관직자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행해지던 당시의 관례적인 배려를 만회도 따른 것이다.

만회와 류영경은 약 두 달 간 같은 길 위에 있었다.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은 일정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협력하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압송관과 유배객의 갈등과 그 전개 과정이 유배압송일기인「북정일

기」에는 이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4. 결론

「북정일기」는 유배 압송관의 일기이므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압송관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떻게 유배인과의 갈등이 전개되었는지를 압송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유배인과 압송관의 갈등 원인은 무엇보다 유배일정과 관련된 것 이었다. 가능하면 규정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압송관의 입장이라면 죄가 덧나지 않는 한에서는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유배인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 배소에 가시울타리로 에워싸고 내가 들어가 승상에게 작별하고 그 문을 지키게 하였다. 통진, 송화 및 부사와 더불어 동문 위에 앉아 긴 강을 내려다 보고 멀리 만주의 산을 바라보니 약간 경치가 있으나 신정지감[38]이 스스로 그치지 아니하더라.
>
> (5월 13일)[39]

만회가 류 승상을 안치한 뒤 승상 일행과 헤어지기 전의 모습이다. 압송관인 만회와 유배인 류 승상의 아들들, 이제부터 유배인을

---

38) 신정지감(新亭之感)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바야흐로 대규모의 정치적 숙청이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유배를 당한 사람, 압송하는 사람 등이 함께 모여 앉아 있으니 그 심란한 심사가 어땠을지 짐작이 된다.

39) 以籬圍之 余入辭丞相 鎭其門 與通津松禾及府使 坐東門上 下瞰長江遠眺胡山 稍有景致 而新亭之感 自不能已.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경흥의 부사가 한 자리에 앉아 긴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니 유배라는 형벌에 대해 오히려 더 알 수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물론 모든 압송관과 유배인의 관계가 만회와 승상 일행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승상 일행의 입장에서 볼 때 만회의 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압송관의 입장에서는 유배행렬을 이끌고 나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게 고역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만회는 절개 높은 선비였고 학문이 깊은 학자이기도 하였지만, 압송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내는 일은 그에게도 쉽지 않았다. 그는 유배인을 압송하면서 무시로 들었던 부정적인 감정들(분노, 자책, 체념 등)을 솔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솔직한 기록들이 고마운 이유는 유배인이 아닌 압송관의 입장에서 유배를 바라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북정일기」는 저명한 학자의 문집에 실려 있는 글로서는 다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솔직한 감정 표현을 종종 하였다. 그러나 이런 솔직하고 담백한 기록들 덕분에 압송관이 압송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얻었다. 이로써 새롭게 더 알게 된 '유배길'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수긍할 만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유배일기뿐만 아니라 유배압송일기, 유배지 방문일기 등도 더 발굴되어 활발히 연구되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晩悔集』上下, 도산학술연구원, 1997.
『全陽府院君遺蹟』, 전주류씨 全陵府院君宗中, 2008.
조선왕조실록 DB

〈坎窞日記〉(金鑢)
〈남뎡일긔〉(朴祖壽)
〈南遷錄〉(宋上琦)
〈北謫日記〉(趙憲)
〈壬寅遺事 夢窩星州遺敎 附竹醉富寧遺敎〉
〈玆山錄〉(朴遇賢)
『글짓기 조심하소』, 오희복 역, 보리, 2006.
『錦坡遺集 玆山錄』, 김형만 역주, 신안문화원 신안향토사료집, 2016.
『불멸의 중봉 조헌』, 김포문화원 편역, 2004.
『玉吾齋集 4』, 박종훈 외 역,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문진, 2013.

2. 논저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비평』67, 역사비평사, 2004, pp.262~282.
류정동, 「만회 권득기의 생애와 철학사상」, 『백제연구』10, 충남대 백제연구소, 1979, pp.237~247.
신동호, 「만회 권득기의 유학사상에 나타난 근대정신」, 『유학연구』1, 충남대 유학연구소, 1993, pp.19~39.
신상필, 「사실의 기록과 '傳' 양식의 새로운 가능성-「유연전」을 중심으로-」, 『동방학문학』39, 동방학문학회, 2009, pp.121~141.
임준철, 『내 무덤으로 가는 길』, 문학동네, 2014.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전병욱, 「만회 권득기의 격물설」, 『동양철학연구』77, 동양철학연구회, 2014, pp.345~373.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전재동, 「권득기의 『논어참의』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9.

함영대,「만회 권득기의 학술정신과『맹자참의』」,『한국사상사학』55, 한국사상사학회, 2007, pp.49~77.

(투고일: 2020. 8. 14 심사완료일: 2020. 9. 16 게재확정일: 2020. 9. 18)

조수미
소 속: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주 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전자우편: 93chosm@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Kwon Deuk-gi's 'Bukjeongilgi'

- Conflict between the Exile and the Escort Officer -

Cho, Su-mi

'Bukjeongilgi' is Manhoe Kwon Deuk-gi's Exile convoy diary. This is a record of the convoy Ryu Young-kyung.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could be summed up as 'the occurrence of conflict-the deepening-the effort to resolve the conflict -the end.'

In general, even if the escort officer, which did not have any antipathy toward the exile in the first, conflicts begin when the schedule of the exile falls apart. And at some point, the exile and the escort officer are emotionally at odds. However, as the schedule for the exile draws to an end, a sense of solidarity is formed between the exile and the escort officer. This is because there is a common goal to arrive safely at the exile site.

Manhoe was an elegant Confucian Scholar and an academic scholar, but it was not easy for him to carry out his duties as a convoy. He honestly recorded the negative emotions(anger, self-reproach, abandonment, etc.) he felt while leading an exile

Key words: Kwon Deuk-gi, 'Bukjeongilgi', Manhoejip, Exile convoy diary, Ryu Young-kyung, Conflict over the Exile Schedule